

완도군, 탄소중립 5개분야 계획 수립

‘바다와 공존하는 탄소중립~’ 제시
블루카본 발굴 등 41개 과제 실행

완도군은 최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를 열고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2025~2034)’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총괄적인 중장기 계획이다.

완도군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한국환경공단 컨설팅과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최종 수립했다.

완도군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30만 톤의 48%에 해당하는 14만4,000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세부 이행 과제가 담긴 기본 계획을 이행할 방침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는 △넷제로 건물 및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 △기후 스마트 농업 실현 및 에너지



완도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효율화 개선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순환 이용 극대화 △탄소 흡수원 확충 및 블루카본 잠재군 발굴 등 5개 부문의 41개 추진 과제이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차 완도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전남도,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게 된다.

김신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완도군 제공

영암군, 도-농 상생 한마당 직거래장터

9~10일까지 계림아이파크SK뷰
도심 판로·소득 증대 기여 효과

영암군은 9일부터 10일까지 광주 동구 계림아이파크SK뷰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아파트 광장에서 ‘2025 도시·농촌 상생 한마당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 직거래장터는 영암군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협력해 마련됐으며, 광주시민에게는 영암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 농업·기업인에게는 도심 판로와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한다.

영암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시 아파트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을 제시해 도농상생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농부남생이마켓, 영암축협, 해피파기전양조 등 영암 19개 농가·생산자단체·기업 등은 직거래장터에 각각 다양한 판매 리스트를 갖춘 판매 부스를 연다.

친환경쌀·한우·잡곡·채소 등 농축산물에서

된장·고추장·김치·요구르트·치즈·떡·전통주·무화과잼 등 가공식품까지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주민에게 판매한다.

아파트 직거래장터가 흥과 정이 넘치는 시골 장터 분위기가 나도록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할인 이벤트도 풍성하다.

각 판매부스 별로 자체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서는 가야금 공연, 사생대회가 열린다. 각종 체험 부스와 휴대용 액정 교체 부스도 열려 실속 있는 장터가 될 전망이다.

영암군은 직거래장터 내에 영암프렌즈숍,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영암물, 고향사랑기부 등 홍보 부스도 열어 광주시민에게 영암의 매력을 전달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의 맛과 건강, 품질을 그대로 아파트단지로 옮겨 놓은 직거래장터에서 광주주민과 반갑게 만나겠다”며 “영암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광주시민에게 자신있게 소개한다. 아파트 직거래장터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강진군, 관광택시 ‘호응’

강진군이 운영 중인 ‘관광택시’가 대중교통 이용객과 운전이 어려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관광택시는 1~3인 소규모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문 택시기사가 동행하며, 강진군 내 주요 관광지를 원하는 일정 따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다.

단독 이용, 맞춤형 일정, 저렴한 비용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강진군 관광택시는 강진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관광택시 이용 요금은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시간 5만원, 3시간 7만원, 5시간 10만원, 8시간 15만원, 10시간 18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이 시행 중인 ‘반값여행’ 지원 사업과 연계해 요금의 50%를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택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관광객은 전국 대표번호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예약 때 여행 희망일과 시간, 주요 방문지를 함께 상담하면 된다. 강진=한태선 기자

나주시, 청년 임대주택 35호 입주자 모집

28일까지 방문·전자우편 접수
135호 공급, 최대 4년간 거주

나주시가 보증금 없이 아파트 관리비만 내고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35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나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취업 청년 임대주택은 나주에 일자리를 얻고 전입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입 첫해 송월동·삼영동 소재 부영아파트 30호, 지난해에는 70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송월동 부영아파트 35호를 추가로 확보했다.

69.4㎡ 15호, 82.6㎡ 20호를 공급하고 82.6㎡는 전입 세대 구성원이 2명 이상인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입주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면서 나주시가 아닌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아파트 입주일 즉시 전입이 가능한 전입 예정자다. 관내 사업체 근로자 또는 사업

자로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 세대 구성원이 많은 가구, 나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에게는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아파트는 기본 2년 계약으로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되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6월 중 입주자를 최종 발표한 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취업 청년 임대주택이 나주에서 새로운 직장, 삶의 터전을 마련한 타 지역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풍족한 문화생활 혜택을 통해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임신과 출산 지원, 안심 돌봄, 명품 교육까지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행복 나주를 구현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목포해상케이블카(좌)는 최근 대한숙박업종양회 목포시지부와 지역관광 활성화와 숙박업계 상생을 위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숙박업종양회 지부 제휴 협약

숙박업소 이용시 할인 혜택

목포해상케이블카(좌)는 최근 대한숙박업종양회 목포시지부와 지역관광 활성화와 숙박업계 상생을 위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숙박업종양회 목포지부 소속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목포해상케이블카 탑승 시 성인 기준 일반객비는 2,000원, 크리스탈 캐빈은 3,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관광과 숙박을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 상생 모델로 관광객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

역업계에게는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훈 대한숙박업종양회 목포시지부장은 “관광의 중요한 기반을 차지하는 숙박업소와 목포의 대표 관광시설인 해상케이블카간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창현 목포해상케이블카 부사장은 “숙박 연계 할인은 관광객 만족도와 체류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식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과 협력해 목포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신안군, 상반기 햇빛아동수당 전달식 마쳐

신안군은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상반기 햇빛아동수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2023년 햇빛아동수당 연 4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 80만원에 이어 올해 연 120만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햇빛아동수당 대상자는 총 2,998명으로 작년보다 110명이 증가했으며, 총지급액은 35억 9,760만원에 달한다. 대상 아동의 46%에 해당하는 1,381명은 햇빛아동수당에 가입해 만기 시 7.5%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직무대행은 “가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목포경찰, 이륜차 등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목포경찰서는 오는 8월까지 이륜차 난폭운전 등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목포경찰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동원해 법규 위반차량이 단속 지점을 통과해도 다음 교차로에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격자식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후면 단속카메라,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 시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내 배달대행업체 대표 간담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광판과 버스정보 시스템에 홍보 문구를 송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병조 목포경찰서장은 “운전자 본인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진도군, 복지기동대 담당자 간담회

진도군은 최근 진도여성플라자에서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읍면장과 읍무 담당자 등 40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복지기동대 성과대회 장려상 수상을 격려하고 올해 성과대회와 지역복지 사업평가를 대비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전문기동대원을 확대해 자체 사업예산을 편성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사업을 개발·추진하는 것을 논의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